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사도 15, 1-2, 22-29

[화답송] 시편 67(66), 2-3, 5, 6과 8(◎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 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독서] 묵시 21, 10-14, 22-23 <또는 22, 12-14, 16-17, 20>

[복음 환호송] 요한 14, 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4, 23-29 <또는 17, 20-26>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135 입당 415	봉헌 511 봉헌 69 217	성체 174 성체 160 174	파견 246 파견 244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6주일(5월 5일)		주님승천대축일(5월 12일)		성령강림대축일(5월 19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김안토니오(휘)	이마리크레센시아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이바오로(명국)	심미카엘(태규)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최분도(환준)	이레이몬드(창용)
제 2 독서	김안토니오(휘)	심헬레나(승화)	김글라라(순희)	손리디아(정옥)	임루카(승원)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오늘의 강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말씀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요한14,23-24참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성령이시고, 또 하나는 평화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14,26)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요한14,27)고 단단히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며,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 가르침으로써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입니다. 그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도15,28)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과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였기에 모두가 편안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이끄심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평화를, 평화를 주소서!

천주교회 입교 동기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라고 대답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거센 세파가 몰아치는 인생 여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물론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온 세상의 평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평화를 선사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 14,27)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재력, 권력, 군사력 등을 키워서 다른 이들을 위협, 제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십니다.(에페 2,14 참조)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참된 평화를 이룩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 신자들로 시작되었지만, 왕성한 선교활동 덕분에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교회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어려운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준수해왔던 모세 율법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못 입듯이 입었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의 상속자가 됩니다.(갈라 3,27-29 참조)

그런데 일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중 몇몇이 안티오키아 교회에 와서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여 물의를 빚습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인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서 문의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원로들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논의를 하였고, 성령의 인도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을 배려하여 이들이 역겨워하는 몇 가지 사항,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리고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와 ‘불륜을 멀리하라’ 고 지시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원칙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을 ‘천상 예루살렘’ (제2독서)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닙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이미 세상에서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참된 평화를 선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헌신할 때, 그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완고함 때문에 참된 평화가 자리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주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주님! 평화를, 평화를 주소서.”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교황님의 기도지향

일반: 정치인과 법조인

정의를 구현하여야 할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언제나 올곧은 양심으로 행동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신학교

신학교, 특히 선교지의 신학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복음 선포에 온전히 헌신하는 목자들을 양성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의 향기

나일 강에서 만난 하느님

“남수단에서 일하면서 뭐가 제일 무섭고 힘들었어
요?” “말라리아, 반군, 그리고 나일 강 하마요!” 재작
년에 독립한 남수단에서 난민이 가장 많은 곳은 북부 나
일 강 상류지역입니다. 이곳은 우기가 되면 도로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긴급구호 총책임자인 저도 소형보트를 타
고 현장 방문을 다녀야 했습니다.

도도한 나일 강 위로는 워터 히아신스라는 청초한 보라
색 꽃이 무더기로 떠다녀 예쁘기도 하지만 이 꽃은 한 송
이가 사천 송이까지 퍼지는 가공할 번식력으로 뱃길을 막
는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또 사방에서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면 근처에 악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정작 이곳 사람들은 하마를 훨씬
무서워합니다. 귀여운 이미지의 하마가 실제로는 몸무게
가 최대 7,000kg으로 열 마리 이상씩 떼 지어 다니면서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는 배는 무조건 뒤집어엎고, 사람을
물어뜯어 두 동강 내는 포악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현장 방문 3일 째에 우리는 ‘나일 강의 독한 맛’ 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유난
히 배 모터에 워터 히아신스가 자주 걸려서 해질 때까지
절반도 못 갔는데 설상가상으로 먹구름까지 몰려와 삼시
간에 사방이 칠흑처럼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일행은 갖가
지 불길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한 회장은 번개가 제일 두려웠답
니다. 금속으로 만든 배가 번개에 맞으면 우리 모두 인간
바비큐가 되고 말테니까요. 그리고 지역 총 책임자와 운
전사는 하마가 겁났답니다. 강물 위에 떠다니는 먹물 같
은 것이 워터 히아신스인지 하마 떼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반군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캄캄한 강변에서 플래시 불빛이 깜빡이며
정지하라는 신호가 보였습니다. “속도를 최대로 올려서
피해 갑시다!” 회장이 소리 질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
지면서 성호가 저절로 그어졌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잔뜩 긴
장한 채 최대 속도로 15분쯤 갔을까... 이번엔 십여 개의
플래시 불빛이 동시에 깜빡였습니다.

“아, 이젠 꿈쩍없이 반군들에게 걸리고 말았구나.” 이
런 절체절명의 순간, 놀랍게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
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반군기지의 불빛인 줄로만 알았던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캠프다!”

그 한마디에 우리 일행은 서로 부둥켜안고 환호성을 질
렀습니다. 이 기쁜 와중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번에도 하느님께서 날 업고 다니셨구나.”

한비아 비아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5월의 성인/성녀

고르디아노, 골롬바, 그레고리오, 니콜라오, 다미아노
도미니코, 레오, 레오나르도, 로마노, 루치아노
마리아막달레나, 마티아, 바실리오, 발렌티노, 베네딕타
보나파시오, 빈첸시오, 수산나, 아우구스티노, 야고보
안드레아, 안젤로, 예레미야, 유스토, 율리오, 이냐시오
이시도르, 켈마, 체칠리오, 치질로, 크레센시아나
클라우디아, 테오도르, 티모테오, 파비오, 필립보

* 성 야고보(5월 3일)

성경에는 두 야고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5월 3일이 축일
인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마태 10,3)이고 다른 야고보는 제
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이며 축일은 7월 26일이다.

두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하여 알패오의 아들을 소야고
보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을 대야고보라고 하는데 그 이
유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야고보는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로
서 소개되고(마태 13,55) ‘야고보 서간’을 썼다고 전해진
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뒤 야고보에게
알렸으며(사도행전 12,17) 전교여행에서 돌아온 바오로가
우선 야고보를 방문하는 등(사도행전 15,13-29)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시다가 62년에
순교하였다.

가톨릭전례

“혼인성사는 인간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석의 양극이 끌리듯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립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은 인류를 지탱해온 뿌리이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 동력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손으로 인간을 빚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본성 깊은 곳에 혼인의 소명을 새겨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창세 2,24)

하느님께서는 온갖 생물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번성하여 온 세상을 가득 채우라 명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혼인은 더 심오한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이 넘치는 혼인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배웁니다. 인간에게 사랑은 근본 소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혼인 제정자이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거룩한 사랑에 혼란이 끼어듭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확인하는 이 혼란은 남녀의 본성에서 오는 것도, 그들 관계의 본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607항)

하느님과 멀어진 원죄의 결과는 부부 사이의 근본적인 친교를 가로막습니다. 그 장애물은 불화와 지배욕, 부정과 질투, 증오와 결별에까지 이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 상호간의 매력은 지배와 탐욕의 관계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죄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회복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나라’ 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혼인 생활을 하도록 힘과 은총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죄의 온상인 교만함과 이기심을 끊어버리고, 그분의 힘은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15항 참조)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에서 흘러나오는 은총 속에 맺어진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혼인관계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땅으로부터 육신을 튼튼하게 하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찌웁니다. 우리가 받은 소중한 성(性)은 본성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배우자와 나눔으로 자녀를 맞이합니다.

그 자녀는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사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죽음이듯이, 사랑이 결핍된 성의 남용은 타락과 파국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왜곡되어가는 성운리는 죽음의 문화를 초래하며,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혼인은 하느님의 구원사업 핵심에 들어있는 거룩한 성사입니다. 혼인은 가정을 탄생시키고, 가정은 새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가정은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부부애와 가정생활의 기쁨 속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교회의 작은 방주입니다.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창세 7,1)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 1601-1620항, 1643-1658항

사목국 연구실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지향	봉헌자
5월 5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한다윗(홍석)	한수산나(서연)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허인홍	이골룸바
	생 새영세자들 감사	새영세자일동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Bryson Chen 생일	김안나(영숙)
	생 이야고보	전례성가대
	생 정로사(화봉) 건강	조안젤라(난순)
5월 7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서라이문도	가족
	생 크리스 페리	김엘리사벳
5월 8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5월 9일 목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김율리안나(희자)	지요한
5월 10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5월 11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서라이문도	가족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생 이야고보 생일	이카타리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1	227	64	356
헌 금	\$481	\$1,465	\$74.25	\$2,020.25

< 교무금 > \$3,505

이기희(3-4) 강수영(4) 배젼마(3-4) 김승희(5-6)
허은석(3-4) 이재우(2-4) 신우현(3-4) 황국명(4)
박종영(4-6) 김현수(2-5) 송인근(1-4) 이건용(5)
김종성(3-5) 이종주(1-6) 최명숙(3-4) 김영자(4)
박호영(5)

< 성소후원금 > \$60

허은석(3-4) 박호영(5)

< Bishop's Appeal >

김명환(1-12)

< 감사헌금 > 기타동호회 \$120 전문자 \$200

< 성모의 밤 > 서춘애 \$200 김병수 \$50

임윤택 \$30 김영자 \$30

< 2차 헌금 > \$741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1,015.28	-	\$311,015.28
봉헌금	\$291,545.28	-	\$291,5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5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신앙의 해를 위한 성인교리반

시작 : 5월 21일(화) 저녁 미사 후(약 6개월간)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예비자 교리반(주일반)을 6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야외미사 안내

일시 : 6월 2일 교중미사 * 8시 미사 있습니다.
장소 : Joaquin Miller Park

◆ 장학기금 마련 Walk a Thon 행사 및 도네이션

* Walk a Ton : 6월 2일 야외미사 전 오전 9시~10시 40분
접수 : 친교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 프란치스코회 : 5월 5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대건회 : 5월 11일(토) 오후 6시 대건회관
- * 구역장회의 : 5월 12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성당 화단 가꾸기 봉사

일시 : 5월 11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봉사내용 : 성당주변 화단 및 나뭇가지 정리
봉사대상자 : 평협소속 단체 전원 및 봉사 희망자
(당일에 각 단체별 봉사구역 배정 예정)

◆ 신앙의 해 성경가훈 책자를 위한 가족사진 촬영

촬영접수 : 5월 5일, 12일 친교실
촬영 : 5월 19일 아침미사/교중미사 후 성모상앞(주차장쪽)
* 사진촬영을 못 하시는 가정은 접수처로 사진을 가져
오시거나 schun3@netzero.com로 보내주십시오.(6월1일까지)

◆ 성경백주간 종강

2010년 7월부터 시작한 성경백주간 성부, 성자, 성령반이
지난

5월 구역모임 **시에서 19-20강**

6 구역	5월18일(토) 6시	이창용 레이몬드 맥
7-1구역	5월11일(토) 2시	파운더스룸

◆ 북가주 한인 천주교 연합 골프대회

일시 : 5월 18일(토) 오후 12시 반(샷건)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10051 Doolittle Dr. Oakland
참가비 : 남자개인 \$90 여자개인 \$80 부부 \$150
문의 및 접수 : 번귀태 성우안토니오 707-696-7743
김철우 가브리엘 510-910-2239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덴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한인크레딧유니온 안내

교육관에 위치한 한인크레딧유니온은 매 주일마다 오픈하
며 다른 은행과 달리 월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자가 적립
되는 적금이 있으며 자동차 용자는 특별히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 : 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CA 95050
Tel : 408-260-0900

주일학교 소식

- * 5월 12일(다음 주일) : 주일학교 종강
- * 5월 19일 합동미사 - 첫영성체식

안국학교 소식

- * 5월 11일 : 북가주 구연동화 대회
- * 5월 18일 : 종강식 및 학습발표회
- * 5월 19일 : 교중미사 중 노래 발표
- * 5월 25일 : 메모리얼데이 휴교
- * 6월 1일 : 소풍